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한국어 문법 기능 습득*

Acquisition of Grammatical Functions of the Korean Language by
Korean-Chinese Children :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이귀옥(Kwee-Ock Lee)¹⁾

김형재(Hyoung-Jai Kim)²⁾

이혜련(Hae-Ryoun Lee)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pontaneous utterances of 20 1-2 year old Korean-Chinese children in Yanji, China by videotaping their spontaneous natural speech during interaction with his/her caregiver for 30 minutes on 4 separate occasions. Utterances were transcribed and coded by nominative and accusative case markers; then analyzed by grammatical functions. Results showed that the order and pattern of the acquisition of the case marking system of Korean-Chinese bilinguals differed from that of Korean monolinguals. Bilinguals used the accusative marker -lul earlier than the nominative marker -ka and overextended the accusative marker more often than the nominative marker.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Gathercole (in press) who found that bilingual children differed from monolinguals in mastering grammar.

Key Words : 이중언어(bilingual), 격조사 습득(acquisition of case-markers), 조선족 아동(Korean-Chinese children).

I. 서론

생후 12개월경이면 아동들은 대부분 한 단어

표현(일어 표현)을 시작하며 한 단어 발화를 시작한 후 몇 개월 내에 자신들의 일상 어휘를 결합하여 두 단어 발화를 조합하기 시작한다. 이러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¹⁾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교수

²⁾ 경성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³⁾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Kwee-Ock Lee, Department of Human Ecology, Kyungsoo University, Busan 608-736, Korea

E-mail : klee@ks.ac.kr

한 두 단어 발화의 연속과정 직후에 아동들은 실질적인 두 단어 발화문을 만들게 된다. 이 두 단어 간의 관계에서도 구문관계와 의미관계가 명확해지며 억양도 두 단어 간에 휴지가 개입되지 않고 문장 전체에 걸쳐게 된다(류관수, 2000). Brown(1973)과 Bowerman(1973)은 두 단어 문장이 문법성(a grammatical feature)을 갖는다고 해석했는데, 이때 발화길이 증가함에 따라 문법형태소의 사용이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Brown(1973)은 아동의 평균 발화 길이(MLU : Mean Length of Utterance)가 2.0~2.5정도가 되면 문법적인 문형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출현순위는 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Lahey, Liebergott, Chesnick, Menyuk, & Adams, 1992), 아동의 어휘량이 증가하고 문장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문법형태소의 출현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이은경 · 권도하, 1999).

문법은 언어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과 질서, 또는 그것을 찾아내어 기술하는 것으로 언어는 어느 것이나 서로 공통적인 특질을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문법은 언어마다 다르다(김명희, 2003).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를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성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는 어근에 파생접사나 어미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첨가어이므로 단어의 굴절이 내부적 변화로 표시되는 굴절어인 영어나 독일어와는 달리 문법형태소가 언어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익섭 · 임홍빈, 1998). 또한 한국어

는 서술어 앞에 두 개의 명사구가 오는 SOV (Subject-Object-Verb)언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은 유형의 언어들보다 V앞에 오는 두 개의 명사구를 구분해 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발달한 것이 ‘이/가’, ‘을/를’과 같은 문법격이라고 판단된다(임동훈, 2002).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문장구성성분의 자리를 말할 수 있으나 중국어,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는 문장구성성분의 자리를 바꾸면 말이 되지 않거나 뜻이 달라진다(남기심 · 고영근, 2001). 따라서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문장구성성분의 위치가 아주 중요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문장 구성성분의 위치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한국어는 내포문의 구성에 의해 그리고 명사화 내포문 구성일 경우에는 격조사가 결합하여 문장성분을 실현한다(권재일, 1997). 따라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아동의 문법발달 연구는 문장성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순보다는 문법형태소(grammatical morpheme)를 중심으로, 특히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중국어와 비교한 결과는 <예 1>에서 잘 알 수 있다.

<예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격조사가 없고 어순으로 문법적 기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국어는 어순보다는 격조사가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반면, 중국어는 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순이 매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이처럼 문법적 구

<예 1> 한국어-중국어 문법 비교

(1-1) 한국어	(1-2) 중국어(해석)
a. <u>원숭이</u> 가 <u>토끼</u> 를 <u>잡았어요</u> .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a. 猴子(원숭이)抓了(잡았어요)兔子(토끼)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b. <u>토끼</u> 를 <u>원숭이</u> 가 <u>잡았어요</u> . 목적어 + 주어 + 서술어	b. 兔子(토끼)抓了(잡았어요)猴子(원숭이)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a 와 b는 문장 뜻이 같다.	a 와 b는 문장 뜻이 달라진다.

조가 다른 두 가지 언어인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아동들의 한국어 발달과정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법적 기능이 다른 두 언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의 제1언어 발달과정이 단일언어 아동들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격조사(case-markers)에는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체언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곧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한다. <예 2>와 같이 대표적인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s)은 격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문법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예 2> 엄마-가(주격조사) 밥-을(목적격조사) 먹었다.

그러나 아동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격조사 체계를 습득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첫째, 격조사는 임의적이어서 <예 2>와 같이 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문법적 관념의 비중이 높은 격조사는 어휘적 관념의 비중이 높은 보조사보다 생략이 더 잘 되며 주격조사(nominative case)보다 목적격조사(accusative case)의 생략이 훨씬 높다(김건희·권재일, 2004).

<예 2> a. 엄마-가 밥- 먹었다. (목적격 생략)
b. 엄마- 밥-을 먹었다. (주격 생략)
c. 엄마- 밥- 먹었다. (주격, 목적격 생략)

둘째, 어떤 문장성분들은 상황에 따라 <예 3>의 경우처럼 생략될 수 있다.

<예 3> a. 밥-을 먹었다. (주어 생략)
b. 엄마-가 먹었다. (목적어 생략)
c. 먹었다. (주어, 목적어 생략)

셋째, 격조사와 문법적 기능이 1 : 1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주어를 표시하는 주격의 경우, 때론 <예 4>의 경우처럼 목적어를 표시할 수도 있다.

<예 4> 엄마-가 아기-가 좋다. (엄마가 아기를 좋아한다는 의미)

넷째, 주격의 경우 ‘-가’와 ‘-이’ 두개의 형태소 이형을 가진다. 즉 대부분 음운론의 규칙에 의해 <예 5>의 경우처럼 ‘-가’는 모음과 함께 명사 뒤에 첨부되어지는 반면, ‘-이’는 자음과 함께 명사 뒤에 첨부되어진다. 또한 목적격조사 ‘-를’은 모음과 함께 명사 뒤에 첨부되어지는 반면 ‘-을’은 자음과 함께 명사 뒤에 첨부되어진다.

<예 5> a. 바다-가 높다. (모음 뒤에 첨부)
b. 산-이 높다. (자음 뒤에 첨부)

다섯째,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격조사와 어순규칙, 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 주의해야 한다. “엄마-가 밥-을 먹었다.”에서 문법적 기능은 격조사에 의해 확인되어지지만 “엄마-가 아기-가 좋다.”의 경우는 어순에 의해 확인되어진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은 아동들이 격조사 체계를 배우는데 부담을 주게 되어 한국아동들의 격조사 습득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다(No, in press). 한국 아동들은 주격조사 ‘-가/이’와 직접 목적격조사 ‘-을/를’을 1 : 8세와 3 : 00세 사이에 발화하기 시작하여 4세가 될 때까지는 격조사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Cho, 1981; Lee & Pae, 1989). 그러나 터키 아동들은 문장을 이해하는데 2세전에 격조사의 문법적 기능을 배운다. 즉 터키어의 격조사는 불규칙한 예가 없이 명확한 형태로 정해져 있고, 그 문법적 형태가 단 하나의 기능을 전달하기 때문에, 터키 아동들이 쉽

고 이른 시기에 격조사를 배운다는 것이다 (Aksu-Koc & Slobin, 1985; Slobin & Bever, 1982). 한국어의 격조사 습득 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순형(1983)은 한국아동들이 2 : 08세에서 2 : 10개월까지는 주격조사 '-가'와 '-이', 목적격조사 '-을/를'이 나타났는데 주격조사 '가'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목적격조사 '을/를'은 2 : 11세 이전에 출현하기는 했으나 그 빈도가 낮았다고 하였고, 이인섭(1986)은 2세 아동들의 조사 분화와 사용빈도를 알아보았는데, 주격조사 '가'가 가장 빈도가 높았고 목적격조사 '을/를'이 가장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김영주(1992)는 1 : 08개월에서 2세 사이의 영아 5명을 대상으로 5~8개월 동안 언어를 수집하였는데, 주격조사의 이형태인 '-이'는 주격조사 '-가' 보다 수개월 후에 나타나며 목적격조사 '-을/를'은 2세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배소영(1997)의 연구에서도 주격조사 '-가'와 '-이'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 '-를'이 발달한다고 하였고, 이은경, 권도하(1999)에서 역시 2세에 주격조사 '-가'가 2 : 06세에 주격조사 '-이'가 3세에서 3 : 06세에 목적격조사 '-을/를'이 습득되었다. 최근 이순형(2000)의 연구를 보면 주격조사는 2 : 06 전후에 목적격조사는 3 : 06세경에 완전히 획득된다고 하였고, No(in press)에서는 주격조사 '-가'를 1 : 07세와 2 : 00세 사이에 발화하기 시작하여 대략 1 : 5달 더 늦은 시기에 목적격조사인 '-를'을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 아동들의 주격조사는 2 : 00세 (1 : 07~2 : 06) 전후에, 목적격 조사는 3 : 02~3 : 06세경에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문법적 체계가 다른 중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격조사 습득 시기와 격조사 발달단계를 살펴보고, 이를 단일언어 아

동인 한국아동들의 격조사 습득시기와 격조사 발달단계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동의 문법적 기능 발달과정은 어떠한가?

1-1. 주격조사('이', '가')의 발달과정은 어떠한가?

1-2. 목적격조사('-을', '-를')의 발달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아동과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동의 문법기능 습득과정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한국아동과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동의 문법기능 습득과정의 발달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한국아동과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동의 격조사 발달과정에서 실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들과 한국어-중국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의 아동들의 한국어 문법 기능 습득을 비교하기 위해 중국현지에 살고 있는 연길의 조선족, 평균연령이 1.07세로 연령범위는 1.03세에서 1.11세까지로 분포된 남 9명, 여 11명 총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부터 약 4개월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종단적으로 아동들의 자발발화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일한 장난감 세팅하에서 아동과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약 30

본 동안 자발발화(spontaneous natural utterances)를 녹화하였다. 이를 전사과정을 거쳐 아동발화를 형태소분석한 후 평균발화길이(MLUm)를 산출하여 Brown(1973)의 I 단계(~1.75), II 단계(1.75~2.25)에 해당하는 아동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부모들이 모두 조선족으로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환경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었다.

먼저 모든 아동들의 시기별 연령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아동 성별 및 연령 (년:개월)

아동	성별	연 령			
		1차	2차	3차	4차
KH	여	1;7	2;2	2;6	3;2
SK	여	1;5	1;10	2;2	2;6
YN	여	1;3	1;8	1;11	2;3
SY	여	1;6	2;0	2;4	2;10
JW	남	1;8	2;1	2;5	2;9
SY	여	1;11	2;6	2;10	3;2
JL	남	1;5	1;11	2;3	2;7
HY	여	1;8	2;1	2;5	2;9
HJ	여	1;9	2;2	2;6	2;10
SY	남	1;9	2;2	2;6	2;9
JY	남	1;9	2;2	2;5	2;10
SH	남	1;9	2;2	2;6	2;9
KK	남	1;10	2;5	2;9	3;1
MY	여	1;5	1;11	2;3	2;7
SL	여	1;4	1;9	2;1	2;5
YH	남	1;10	2;3	2;8	2;11
ES	여	1;10	2;3	2;8	2;11
JL	남	1;11	2;6	2;10	3;2
SE	여	1;9	2;2	2;6	2;10
K	남	1;10	2;3	2;7	2;11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약 1년간에 걸쳐 일어나는 구문론적인 문법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만 1세의 이중언어

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약 4개월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아동들의 발화를 수집하였다. 실험은 연길에 있는 어린이집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일한 장난감 세팅하에 약 30분동 각 아동과 주양육자의 상호작용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아동과 주양육자의 자발발화를 전사하였다. 먼저 관찰할 어린이집에 비디오카메라를 세팅하고, 장난감을 배치하였다. 장난감은 아동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것으로서 유선 전화기 1대, 무선 전화기 1대, 아기 인형, 우유 병, 비행기 1대, 자동차2대, 동물 시리즈(동물 2마리, 공룡 1마리), 호랑이 인형, 소꿉놀이(가스렌지, 접시, 컵, 포크, 숟가락, 주전자, 냄비, 프라이팬) 등을 준비하였다. 아동과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방문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아동의 어머니께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현언어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답형 답을 유도하는 질문보다 개방적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과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녹화하였고 녹화 후 바로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아동들의 자발발화를 한국어 발화분석 컴퓨터 프로그램(KCLA: Kore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2.0)(배소영, 2003)을 이용하여 평균형태소길이(MLU-m :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를 산출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들의 자발발화 중 두 단어 이상 발화를 발췌하여 한국어 문법의 격조사(주격조사 ‘-가/이’, 목적격조사 ‘-을/를’)를 찾아 그 빈도를 각각 수치화하고, 두 단어 이상 발화의 예를 분류하였다. 이때 두 단어 사용을 첫 시작으로 발화하는 격조사 출현의 시기를 보기위해 각 아동이 주격조사 ‘-가’, ‘-이’,

〈표 2〉 대상아동의 시기별 연령과 MLU-m의 평균과 표준편차

	1차		2차		3차		4차	
	M	(SD)	M	(SD)	M	(SD)	M	(SD)
연령	1.07		1.80		2.01		2.27	
총 발화수	100.95		118.30		126.00		129.95	
MLU-m	1.41	0.56	2.41	0.84	3.22	0.91	3.26	0.91

목적격조사 '-을/를'을 처음 사용한 때를 조사하였고, 각 차수별로 격조사의 출현빈도를 계산하여 체계화시켰다. 특히 아동들의 자발발화 중 격조사 체계를 배우면서 일어나는 실수들을 하나 하나 기록하여, 한국어 격조사 발달단계(No, in press)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아동들의 시기별 MLU-m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동들의 1차~4차까지의 표현언어상의 구문론적 발달을 보면 <표 2>에서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MLU-m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연령의 증가

〈표 3〉 시기별 주격조사 '-가'의 습득빈도

이름	1차		2차		3차		4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KH	0/1	0%	0/12	0%	0/5	0%	0/24	0%
SK	-	-	0/2	0%	0/4	0%	0/4	0%
YN	-	-	-	-	0/3	0%	0/3	0%
SY	0/3	0%	0/2	0%	0/22	0%	0/31	0%
JW	0/17	0%	0/42	0%	0/24	0%	0/11	0%
SY	-	-	0/29	0%	0/26	0%	0/23	0%
JL	-	-	0/1	0%	0/1	0%	0/5	0%
HY	0/1	0%	0/1	0%	0/5	0%	0/3	0%
HJ	0/1	0%	0/3	0%	0/7	0%	0/5	0%
SY	0/1	0%	0/5	0%	0/14	0%	0/1	0%
JY	0/7	0%	0/16	0%	0/10	0%	2/7	29%
SH	-	-	0/8	0%	1/11	9%	0/9	0%
KK	0/1	0%	-	-	0/3	0%	0/1	0%
MY	-	-	0/7	0%	0/3	0%	-	-
SL	-	-	-	-	0/7	0%	0/5	0%
YH	0/2	0%	1/1	100%	0/18	0%	0/7	0%
ES	0/12	0%	0/14	0%	0/7	0%	0/8	0%
JL	0/1	0%	-	-	2/9	22%	0/1	0%
SE	0/4	0%	0/4	0%	0/7	0%	0/15	0%
K	-	-	0/6	0%	0/21	0%	1/8	13%

〈표 4〉 시기별 주격조사 '-이'의 습득빈도

아 동	1차		2차		3차		4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KH	-	-	2/3	67%	0/4	0%	5/5	100%
SK	-	-	-	-	-	-	2/2	100%
YN	-	-	-	-	-	-	-	-
SY	-	-	2/2	100%	14/34	41%	9/9	100%
JW	-	-	4/5	80%	4/4	100%	1/1	100%
SY	-	-	0/3	0%	3/4	75%	2/2	100%
JL	-	-	-	-	1/1	100%	2/2	100%
HY	-	-	1/2	50%	0/2	0%	1/1	100%
HJ	-	-	1/1	100%	2/3	67%	1/1	100%
SY	-	-	-	-	7/9	78%	4/4	100%
JY	2/2	100%	-	-	5/5	100%	10/10	100%
SH	-	-	7/7	100%	6/6	100%	1/1	100%
KK	-	-	0/1	0%	1/3	33%	1/1	100%
MY	-	-	-	-	1/3	0%	4/4	100%
SL	-	-	-	-	4/5	80%	2/2	100%
YH	-	-	1/1	100%	-	-	4/4	100%
ES	-	-	4/5	80%	2/3	67%	5/5	100%
JL	-	-	1/1	100%	7/8	88%	3/3	100%
SE	0/6	0%	-	-	6/6	100%	3/4	75%
K	-	-	1/1	100%	4/4	100%	10/10	100%

에 따른 MLU-m의 평균을 보면, 1차는 1.41에서 2차 2.41, 3차 3.22, 4차 3.26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own(1973)의 발달단계와 비교하면, I 단계(1차, 2차)에서 II 단계(3차, 4차)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언어 아동들의 시기별 주격조사 습득빈도는 <표 3>과 <표 4>와 같다.

한국아동들이 처음으로 격조사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으나, 앞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개별 아동들의 독특한 기질과 상이한 언어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격조사 '-가'는 목적격조사 '-를' 보다 더 이른 시기에 습득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이중언어 아동 20명의 주격조사 사용 빈도를 파악한 결과 <표 3>에서처럼 주격조사 '-가'의 첫발화시기는 20명중 4명의 아동이 대략 2:09세쯤

에 나타났고 대부분 아동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표 4>에서처럼 조사 '-이'의 첫 발화시기를 비교해보면 이중언어 아동 19명의 첫 발화시기의 평균은 2:03세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중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문법 격조사 습득시기는 한국 아동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언어 아동들의 시기별 목적격조사의 습득빈도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중언어 아동들의 목적격조사 '-을/를'의 첫발화시기 평균은 2:02세로 나타났다. 한국아동이 주격조사 '-가'를 더 이른 시기에 발화한 것과 비교한다면 이중언어 아동들은 오히려 목적격조사 '-을/를'이 더 이른 시기에 습득된다고 할 수 있다.

격조사의 전체적인 발달양상을 알아보기 위하

〈표 5〉 시기별 목적격조사 '-을/를'의 습득빈도

아 동	1차		2차		3차		4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KH	-	-	2/44	5%	0/11	0%	3/15	20%
SK	-	-	-	-	4/8	50%	0/4	0%
YN	-	-	0/1	0%	2/8	25%	0/11	0%
SY	0/1	0%	5/6	83%	0/20	0%	4/20	20%
JW	4/18	22%	5/12	42%	2/33	6%	1/8	13%
SY	0/1	0%	12/39	31%	10/40	25%	2/22	9%
JL	-	-	0/1	0%	0/1	0%	2/7	29%
HY	0/2	0%	0/2	0%	1/7	14%	1/3	33%
HJ	0/2	0%	1/4	25%	3/16	19%	1/1	100%
SY	-	-	2/4	50%	3/13	23%	2/10	20%
JY	0/1	0%	4/13	31%	3/24	13%	2/16	13%
SH	0/1	0%	9/15	60%	10/22	45%	3/3	100%
KK	-	-	1/2	50%	0/5	0%	0/1	0%
MY	-	-	0/7	0%	0/4	0%	2/2	100%
SL	-	-	0/2	0%	2/11	18%	4/14	29%
YH	0/1	0%	7/13	54%	5/23	22%	1/5	20%
ES	0/13	0%	6/12	50%	3/22	14%	4/17	24%
JL	0/1	0%	0/11	0%	12/15	80%	3/9	33%
SE	3/6	50%	0/16	0%	1/2	50%	17/27	63%
K	1/2	50%	0/7	0%	9/34	26%	7/12	58%

여 각 순차별로 전체 아동들의 격조사 평균 비교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격조사 '-가', '-이'는 1차에서 4차로 시간이 지날수록 격조사의 출현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목적격조사 '-을/를'은 1차에서 2차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가 3차에서는 약간 감소하다가 4차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적격조

사 '-을/를'이 2차시기에 어느 정도는 발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문법 격조사의 발달단계 (No, in press)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과 중국 조선족 아동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No(in press)에서는 한국 아동들의 격조사 발달을 시기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본 연구의 이중언어

〈표 6〉 이중언어 아동 격조사(주격, 목적격)의 평균 비교

차 수	주격조사(-가)		주격조사(-이)		목적격조사(-을/를)	
	빈도	%	빈도	%	빈도	%
1차	0/51	0	2/8	0.25	8/49	0.1633
2차	0/153	0	24/32	0.75	54/211	0.2559
3차	3/205	0.0146	66/104	0.6346	70/319	0.2194
4차	3/171	0.0175	70/71	0.9859	59/227	0.2599
전 체	6/580	0.0103	162/215	0.7535	191/806	0.237

〈표 7-1〉 한국아동과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1단계 발달 비교

한국 아동		중국 조선족 아동	
설명	예	설명	예
주격조사 '-가' 발화시작	'-가' 사용 엄마-가 해줬어. [H : 1.07]	주격 '-이'	'-가' 생략 아이 나온다. [HY : 1 : 08] '-이' 사용 밥-이 다 되었습니다. [SY : 2.00]
	'-을' 생략 고기 먹-어. [MJ : 2.00]	목적격 '-을' 발화시작	'-을' 사용 이거 밥-을 먹자. [JW : 1.08]

아동들과 격조사 발달을 시기별, 단계별로 비교, 분석 하는 것이 가능하다. No(in press)는 한국어 격조사 발달단계를 총 4단계로 나누어 주격조사 '-가' 발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1단계, 주격조사 '-가'의 과대확장시기를 2단계, 목적격조사 '-을/를' 발화시기를 3단계, 격조사체계가 완전히 습

득되는 시기를 4단계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o(in press)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아동과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1단계 발달을 비교한 결과는 <표 7-1>과 같다.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 한국어

〈표 7-2〉 한국아동과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2단계 발달 비교

한국 아동		중국 조선족 아동	
설명	예	설명	예
	'-가' 사용 엄마 : 기차 갔었어? 아동 : 기차-가 갔었어. [H : 1.09]	'-이'사용	엄마 : 이기 물 나오니? 아동 : 물-이 못 나온다. [ES : 2.03]
주격조사 '-가' 과대확장	직접 목적격 엄마 : 쥬스 마시었어? 아동 : 쥬스-가(→를)마시었어. [MJ : 1.09]	주격조사 '-가'	할머니 : 애기 잠다, 뭐 함까? 아동 : 코-이(가) 나왔습니다. [SE : 2.10]
	간접 목적격 엄마 : (장난감 자동차를 가리키며) 엄마-가 누구-한테 사주었다? 아동 : 민재-가(→한테) [MJ : 2.03]	주격조사 '-이' 과대확장	직접 목적격 엄마 : 애기 풀이 아가하재, 열이 나는 가 봐라. 아동 : 애기 또 풀-이(을) 맞쳤음다. [SY : 2.10]
	소유격 엄마 : 헉이-가(→의)엄마-지. [H : 1.10]		엄마 : 칼있다, 뭐 베겠습니까? 아동 : 여기를 칼-이(로) 벤다 응. [JW : 2.05]
	연결어미 아빠 개구리-가 형아 개구리-가(하 고) 노는게야. [MJ : 2.04]		'-을'사용 엄마 : 애기 우유 먹일까, 물 먹일까? 아동 : 물-을 먹이자. [JW : 2.01]
		목적격 조사'-을' 과대확장	주격조사 '-가' 할머니 : 소이, 아매 물을 주시오. 아동 : 아매-를(가) 물-이(을) 마이게. [SE : 2.10]
		간접 목적격	엄마 : 먹는 게 아니야, 이게 놀이감이다. 아동 : 다 어머니-를(에게) 먹이자. [JW : 2.05]

<표 7-3> 한국아동과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3단계 발달 비교

한국 아동		중국 조선족 아동	
설명	예	설명	예
목적격 '-을'	목적격 조사 사용 쿠키몬스터-가 기타-를 먹어. [H : 1.11]	목적격 '-을'	목적격 조사 사용 밥-을 하자. [YN : 1.11]
	목적격 조사 사용 아저씨-가 나무-를 던졌어. [MJ : 2.06]		목적격 조사 사용 밥-을 먹었니? [JW : 1.08]
발화 시작	간접 목적격 조사 과대확장 혁이-가 민들레-를(→가) 있어. [H : 2.01]	목적격 '-을'	목적격 조사 과대확장 내(가) 어머니(가) 무엇-을 줄까? [SY : 2.00]
	목적격 조사 과대확장 민재-는 엄마-를(→가) 미워. [MJ : 2.06]		직접 목적격 조사 과대확장 내(가) 아매-를(→에게) 밥해 주겠음다. [SE : 2.10]
			내(가) 너-를(→에게) 먹일게. [JL : 3.02]

동들은 주격조사 '가' 발화가 시작되고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는데 반해, 중국 조선족 아동들은 주격 '-이'와 목적격 '-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격조사 사용빈도를 살펴본 결과, 격조사를 사용할 문맥에서 주격조사 '-이'는 70%를 사용하였고, 목적격 조사 '-를'은 27%를 사용하여 주격조사보다 그 사용빈도가 매우 낮지만 1단계에서 목적격 조사가 나타난 것은 한국 아동들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아동과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2단계 발달을 비교한 결과는 <표 7-2>와 같다.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아동들은 목적격, 소유격, 연결어미 등에 주격조사 '가'가 과대확장 되는 반면,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가 과대확장되고, 목적격 조사 '-을'도 과대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한국아동들의 주격조사 '-가'의 사용빈도

를 보면 86%, 70%으로 주격조사 '-가'의 사용에 있어 매우 빠른 증가를 보였다. 반면 조선족 이중언어 아동들은 목적격조사 '-를'은 40%, 주격조사 '-이'는 89%를 사용했다. 특히 주격조사 '-이'의 매우 빠른 증가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아동과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3단계 발달을 비교한 결과는 <표 7-3>과 같다.

<표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아동들은 목적격조사 '-를'을 처음으로 발화하기 시작하여 두 번째 명사구에 목적격조사 '-를'의 사용을 한정해서 사용했다. No(in press)는 첫 명사구에는 주격조사 '-가'를 두 번째 명사구에는 목적격 조사 '-를'을 덧붙이는 것이 한국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을 “위치상의 전략(Positional Strategy)”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격조사 발화를 시작으로 목적격조사 '-를'이 간접 목적격조사 자리에까지 과대확장되었다. 반면 이중언어 아동들은 두 번째 명사구뿐만 아니라 첫 번

<표 7-4> 한국아동과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4단계 격조사 발달 비교

한국 아동		중국 조선족 아동	
설 명	예	설 명	예
격조사체계 습득	공-을 던지어. (공을 던지며) 혁이-가 공-을 던지어. [H : 2.02]	격조사체계 습득	곰-이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프담다. [K : 2.11]
	물-을 혁이-가 먹어. [H : 2.03]		범이-는 사자-를 잡아 먹구, 사자-는 나-를 잡아 먹구. [JY : 2.10]

째 명사구에서도 목적격조사 ‘-를’을 사용했다.

한국아동과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4단계 발달을 비교한 결과는 <표 7-4>와 같다.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아동들은 비상태적인 타동사의 대상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 문장에서 명사구의 위치에 대해 개의치 않고 목적격조사 ‘-를’을 넣어 사용했다. 반면 이중언어 아동들은 S+O+V어순에서의 비상태적인 타동사 구조에서는 목적격조사 ‘-을/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였지만, 한국 아동처럼 O+S+V어순에서의 비상태적인 타동사 구조에서는 목적격조사 ‘-을/를’의 사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은 이중언어 아동들의 격조사 과대확장 실수의 유형에 따른 빈도와 예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격조사 ‘-를’ 자리에 주격조사 ‘-이’를 사용한 경우가 전체 과대확장 중 58%로 그 빈도가 가장 많았고 간접목적격조사 ‘-에게’자리에 직접목적격조사 ‘-를’을 사용한 경우는 전체 과대확장 중 20%였다. 전체

과대확장 중 2%로 주격조사 ‘-가’자리에 목적격조사 ‘-를’을 사용한 경우와 주격조사 ‘-가’자리에 주격조사 ‘-이’를 사용한 경우는 그 빈도가 가장 적었다. 또한 주격조사 ‘-이’자리에 목적격조사 ‘-를’을 사용하는 경우와 주격조사 ‘-이’자리에 주격조사 ‘-가’를 사용하는 과대확장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최근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각 언어의 습득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언어 아동들의 어휘발달이나 문법발달은 단일언어 아동들보다 다소 늦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문법발달을 알아 볼 수 있는 격조사 습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이중언어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아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

<표 8> 이중언어 아동 격조사 과대확장 유형에 따른 빈도와 예

설 명	유 형	빈도	%	예 시	
주격조사자리에 목적격조사 사용	‘-가’ -> ‘-을/를’	1	2	아매-를(→가) 물-이(→을) 마이게.	[SE : 2.10]
	‘-이’ -> ‘-을/를’	0	0	-	
목적격조사자리에 주격조사 사용	‘-을/를’ -> ‘-가’	2	5	이거-가(→를) 주구. 야 내-가(→를) 같이 살려라.	[MY : 1.11] [JL : 2.10]
	‘-을/를’ -> ‘-이’	20	58	어머니 칼-이(→을) 쥐지 말라 응. 아매-를(→가) 물-이(→을) 마이게.	[JW : 2.05] [JL : 3.02]
주격조사자리에 다른 주격조사 사용	‘-가’ -> ‘-이’	1	2	코-이(→가) 나왔습니다.	[SE : 2.10]
	‘-이’ -> ‘-가’	0	0	-	
도구격조사자리에 주격조사 ‘-이’ 사용	‘-로’ -> ‘-이’	3	8	여기를 칼-이(→로) 벤다 응. 놀이감-이(→로) 놉다.	[JW : 2.05] [SH : 2.09]
간접목적격조사 자리에 직접목적격조사 사용	‘-에게’ -> ‘-을/를’	7	20	다 어머니-르(→에게) 먹이자. 내(가) 너-를(→에게) 먹이게.	[JW : 2.05] [JL : 3.02]

동들의 한국어 격조사 습득을 분석해 보고, 이를 한국아동들의 격조사 습득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두 언어를 발화하기 시작하는 만 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중단적으로 자발발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이중언어 아동 20명의 격조사 사용 빈도를 파악한 결과 주격조사 '-가'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는데 4명의 아동들이 대략 2:09세쯤에 나타났고, 목적격조사 '-을/를'의 첫발화시기 평균은 2:02세로 나타났고 조사 '-이'의 첫 발화시기는 평균은 2:03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문법 격조사 습득 시기가 한국 아동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아동이 주격조사 '-가'를 더 이른 시기에 발화하는(No, in press) 반면, 이중언어 아동들은 오히려 목적격조사 '-을/를'이 더 이른 시기에 습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명환·이승복(1981)은 한국아동들이 주격조사보다 목적격조사를 더 늦은 시기에 획득하는 이유를 사회적 소통의 욕구로 보아 사용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획득이 늦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어순에서 동사와의 거리가 멀수록 문법 표지를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동사와의 거리가 먼 주격조사는 먼저 나타나고 동사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외현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이 덜한 목적격 조사는 좀 더 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비교해서 한국어-중국어 습득하는 이중언어 아동들이 목적격조사를 이른 시기에 습득한 것은 이중언어 아동들이 중국어 어순과 차이가 나는 한국어의 목적어 위치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 목적격조사 '-를'을 빠르게 습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중언어 아동들이 목적격

조사에 대한 사용의 필요성이 단일언어 아동들보다 절실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숙환(1981)은 한국아동들의 격조사 습득 시 주격조사 '-가'가 '-이'보다 빨리 출현하는 것은 아동의 지각적 특성과 주변 사람들의 이형태 사용빈도에 기인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들의 지각적 특성과 주변 사람들의 이형태 사용빈도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중언어 아동의 격조사 발달과정에 주양육자의 격조사 사용빈도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본다.

둘째, 격조사의 각 순차별 평균을 보면, 주격조사 '-가', '-이'는 1차에서 4차로 시간이 지날수록 격조사의 출현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목적격조사 '-을/를'은 1차에서 2차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가 3차에서는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4차에 증가하였는데, 이는 목적격조사 '-을/를'이 2차시기에 어느 정도는 이미 발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어 문법 격조사의 발달단계에서 한국아동과 이중언어 아동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선족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동들의 격조사 발달단계를 보면, 1단계에서는 한국아동들이 주격조사 '-가'를 먼저 습득한 것에 비해 이중언어 아동들은 주격조사 '-가'보다 목적격조사 '-를'과 주격조사 '-이'를 더 이른 시기에 사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한국아동들이 주격조사 '-가'를 과대 확대하는 것에 비해, 이중언어 아동들은 목적격조사 '-을/를'과 주격조사 '-이'를 과대 확대사용하고 있었다. 목적격조사 '-을/를'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격자리에, 간접목적격자리에 과대확장하여 사용되고 있었고, 주격조사 '-이'는 대부분 주어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주격조사 '-가'자리에, 직접목적어로, 도구격조사 '-로'자리에까지

과대확장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한국아동들이 주격조사 '-가'의 사용에 있어 매우 빠른 증가를 보였다면, 조선족 이중언어 아동들은 목적격조사 '-를'은 40%, 주격조사 '-이'는 89%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히 주격조사 '-이'의 사용에 있어 매우 빠른 증가를 보였다. 3단계에서는 한국아동들이 한국아동들은 목적격조사 '-를'을 처음으로 발화하기 시작하여 두 번째 명사구에 목적격조사 '-를'의 사용을 한정해서 사용한 것에 비해 이중언어 아동들은 두 번째 명사구뿐만 아니라 첫 번째 명사구에서도 목적격조사 '-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중언어 아동들이 한국아동들보다 목적격조사의 사용에서의 발달이 더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단계에서는 한국아동들이 비상대적인 타동사의 대상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 문장에서 명사구의 위치에 대해 개의치 않고 목적격조사 '-를'을 넣어 사용하는 반면 이중언어 아동들은 S+O+V어순에서의 비상대적인 타동사 구조에서는 목적격조사 '-을/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였지만, 한국 아동처럼 O+S+V어순에서의 비상대적인 타동사 구조에서는 목적격조사 '-을/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한국아동과 이중언어 아동들은 4단계에서 어른의 격조사 체계와 같은 격조사 기능을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만1세~2세로 발달하는 이중언어 아동들의 과대확장 실수들을 살펴보면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목적격조사 '-을/를'자리에 주격조사 '-이' 사용이 모든 실수의 58% 정도로 가장 많았다. 또한 목적격조사 자리 '-을/를'자리에 주격조사 '-가' 사용이 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주격조사 '-가/이'자리에 목적격조사 '-을/를'을 사용한 실수 또한 극히 드물었다. 주격조사 '-이'의 사용빈도가 많은 것에 비해 주격조사 '-이'자리에 과대확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중언어 아동들이 주격조사 '-이'의 격조사 체계는 확실히 습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라는 동일한 언어이지만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 즉 이중언어를 배우는 환경인지 아닌지에 따라 발달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격조사 출현시기와 습득빈도를 통한 발달과정을 알아 보았고, 아동들이 발달단계에 따른 실제 발화의 예와 과대확장하는 예를 통해 습득과정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격조사 습득과정의 차이에 대한 원인 규명으로 주양육자의 격조사 사용빈도를 조사해 보아 입력의 영향을 분석해 보거나 한국어-중국어의 어순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으로 사용의 필요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재일(1997). **한국어 통사론**. 서울 : 민음사.
- 김건희 · 권재일(2004). 구어 조사의 특성. 문법 표준화를 위한 계량적 분석.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 김명희(2003). 5~7세 아동의 문법성 판단능력 : 조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1992). 영속성 가설대 성숙가설-한국어 관계절 습득양상과 언어습득 보편성 이론의 관계. 김태욱교수 회갑기념논총, **언어학과 인지**, 63-87.
- 남기심 · 고영근(2001).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 탑출판사.
- 류관수(2000). 유아의 문법구조 습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 배소영(1997). 한국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관한 연

- 구 : 조사 “가, 이, 는, 도, 를”. **말언어장애연구**, 2, 27-42.
- 배소영(2003). **한국어발화분석2.0(KCLA2.0)**. 서울 :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이순형(1983). 한국아동의 언어획득에 관한 연구II- 언어 및 개념산출 책략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12, 187-188.
- 이순형(2000). 한국아동이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시기. **아동학회지**, 21(4), 51-68.
- 이은경 · 권도하(1999). 2~4세 유아의 격조사발달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8(2), 131-153. 대구대학교.
- 이익섭 · 임홍빈(1998). **국어문법론**. 서울 : 학연사.
- 이인섭(1986). **아동의 언어발달 : 한국 아동의 단계별 위상**. 서울 : 개문사.
- 임동훈(2002). 한국어 조사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회**, 16, 149-182.
- 조명한 · 이승복(1981). 어린이 말에서 문법적 형태소의 발달. **행동과학연구**, 6, 단일호.
- Aksu-Koc, A., & Slobin, D. I.(1985). The acquisition of Turkish. In D. I. Slobin(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I : the data*.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werman, M.(1973). Structural relationships in children's utterance. syntax or semantics? In T. E. More.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language*. New York. Academic Press.
- Brown, R.(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 S-W.(1981). The acquisition of word order in Kore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Calgary.
- Lahey, M., Liebergott, J., Chesnick, M., Menyuk, P., & Adams, J.(1992). Variability in children's use of grammatical morphemes. *Applied Psycholinguistics*, 13, 373-398.
- Lee, S., & S. Pac, (1989). Hankwuk atong-uy cisa ihay paltal yenkwu. *Journal of speech-language-hearing disorders of Korea 1*.
- No, Gyeonghee(in press). Acquisition of case and grammatical functions. *Handbook of East Asian Psycholinguistics, Vol III*, Korean Psycho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lobin, D. I., & T. Bever.(1982). Children use canonical sentence schemas : across-linguistic study of word order and inflections. *Cognition*, 12, 229-256.

2005년 8월 31일 투고 : 2006년 3월 4일 채택